

위생관리계획의 수립 (1)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
소장 이 광 목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일

우리는 흔히 1년의 계획을 짜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계획을 짜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한 일정표나 행사예정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기 쉽다.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 되어야하고 또 실천되어야 한다.

I. 위생관리계획은 왜 필요한가.

연간의 계획은 어디까지나 산업재해나 직업병 예방 그리고 일반 위생관리를 실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계획만 세웠다고 해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연간계획의 목적을 잘 인식한 상황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 집중적인 실천이 가능한가.

수립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 여러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럴듯한 껍데기를 가진 계획은 실제로는 쓸모가 없는 수가 많다. 위생관리계획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위생관리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중점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모든 관계자의 협동을 고려한다.

위생관리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능한 위생관리자가 있고 그가 아무리 좋은 계획안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사업주, 관리자, 감독자, 현장책임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로 실천할 사람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또 그들이 계획에 임하는 태도도 파악하지 않은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얻어지는 효과는 별로 없게 되고 형식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II. 연간계획은 어떤것이 있을까.

연간계획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지만 모든 계획이 일정한 형식이나 내용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사업장 전반에 해당하는것 또는 단위 작업부서에 관한것.

이것은 계획을 분류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사 전체에서 실행할 계획은 관리층의 지시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기본방침이 되며 구체적인 것은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것은 단위 작업장에서 지시받은 골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책임자 주도하에 별도의 활동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때로는 단위작업장에서 독자적인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두는 것도 좋다. 물론 이 경우는 수립된 계획을 위생관리위원회의 회부하에 심의하여야 할 것이다.

○ 계획활동수행을 어느 기간에 할 것인지 위생관리활동은 그 내용에 따라 활동기간이 크게 다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 같이 연간 정기적인 교육이 있을 수 있고 표준방법의 작성과 같이 연속작업이 아닌 것이 있다. 즉 연간계획, 연중계획, 월별계획의 연속으로 장기간(수년)이 소요되는 계획 등이 있고, 장기계획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실천할 때 한단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고려되고 예정되어야 한다.

○ 계획추진자(책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연간계획은 그 성질에 따라 활동추진부서가 달라진다. 요즘 외국에서는(물론 대기업의 경우) 위생관리의 “라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서 작업 “라인”이 활동의 모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위생관리의 종국은 공정, 설비에 대한 대책이어야 하므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한다든가 과거의 공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위생관리를 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업기술자의 책임문제가 차츰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또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사람이나 보건관리자(의사)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가 중심이 되는 영역도 있다. 그러므로 활동계획의 책임은 그 계획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미국과 같이 산업위생사를 선임하는 곳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은 이 산업위생사가 책임을 지고 각각의 전문부문은 각 전문가들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III. 연간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실제면에서 어떤 순서로 계획을 작성할 것

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물론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그 목적이 안전위생에 관한 여러가지 조건을 수준높게 하여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위시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 좀더 좋은 삶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어느 누구의 자랑거리가 되거나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어떤 계획이나 정책수립에 있어서 수립자들이 어떤 형태이든 남에게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또 자기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수가 많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실효를 얻을 수 있는 관점에서 앞을 내다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연후에 연간계획수립의 단계를 생각하여야 하는데 이는 요즘 생산공학이나 품질관리에서 쓰이는 SPDCA 방식을 빌려쓰는 것이 좋겠다. 위생관리라는 것을 어떤 일을 창조한다고 생각할 때 일종의 생산이고 또 이것이 생산범주에 든다면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SEE), P(PLAN), D(DO), C(CHECK), A(ACTION)이라는 약자를 다른 SPDCA는 말 그대로이며 즉 직장의 안전위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검토하여 불충분한 것을 수정하고 나아가서 계획을 고쳐 다시 수행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산업안전위생이란 원래 사업장의 유해성을 인식 평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 하였지만 이때 사후관리를 빠뜨릴 수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서는 이 다섯단계의 관계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